

## 2. 정부 정책 동향 (7. 14~7. 19)

<p>세계발전심의위원회(7.14): 98 세계개편 방향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통세 대폭 인상, 담배에 대한 10% 부가가치세 신설 등을 통한 세수 확충 추진</li> <li>-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10%p 인하 등 내수 진작 추진</li> <li>- 상속·증여세 과세범위 확대, 고소득자유직업자 과세 강화,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 공평 과세 추진</li> </ul>
<p>아태 중앙은행 총재(7.14) 円자금 융통제 도입 합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, 일본, 중국 등 아태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새로운 엔자금 융통 제도 도입에 합의</li> <li>- 각국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에 엔화표시채권(일본 국채)을 되사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담보로 엔자금을 제공하는 '레포(환매조건부) 방식'</li> </ul>
<p>재정경제부(7.15) 9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 금융·기업 구조조정 9월까지 마무리 등 금융·기업·노동시장·공공부문 구조조정 신속 추진</li> <li>- 구조조정 방향은 퇴출이 아니라 회생작업(work-out) 위주로 전환, 수출지원 등 적극적인 경제회생 추진</li> <li>- 통화의 신축적 공급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 유도</li> </ul>
<p>농림부(7.15)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포시 일대를 간척해 1억 3천만 평의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</li> <li>- 간척 사업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인</li> </ul>
<p>재정부 장관(7.16) 중소기업 기업가치회생 적극 지원 방침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량 기업의 경우 1년,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3년의 시한을 두고 은행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며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만기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</li> </ul>
<p>노동부(7.17) 사업장 안전관리 자율화 추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잘 아는 현장 직원을 '명예산업안전감독관'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 관리체제 확립 추진</li> </ul>
<p>건설교통부(7.14)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보험 영업이익의 50%를 교통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납입, 의료보수분쟁심의회 설립, 사업용 차량 종합보험 건교부 관장 등의 내용</li> </ul>
<p>한국은행 총재(7.16) 외환시장 불개입 천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의 원화 강세는 단기적인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분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방침</li> </ul>
<p>금융감독위원회(7.19) 워크아웃 대상 그룹 社主의 소유권 박탈 방침 천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4조 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자되어 기업가치회생이 이루어지므로 부실기업 소유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</li> </ul>

(홍 성 민 [hsamu@hri.co.kr](mailto:hsamu@hri.co.kr) ☎724-4034)